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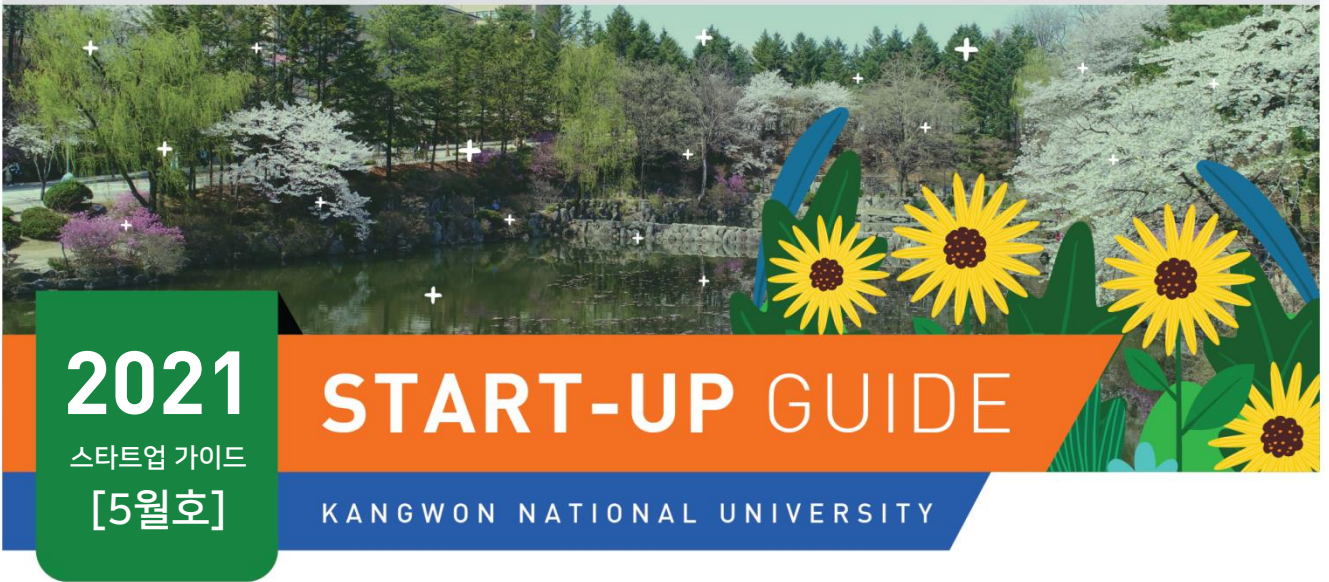
스타트업 가이드 | 2021. 5월호

STARTUP

GUIDE

CONTENTS

우수 교원창업 기업 (주)에이프릴바이오(차상훈 교수) 인터뷰
이달의 창업 이슈
중소기업 경제동향
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
>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공고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가이드(직원 채용 시)



2021

스타트업 가이드
[5월호]

START-UP GUI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우수 교원창업 기업 인터뷰

강원대학교 교원창업 기업 (주)에이프릴바이오(대표: 차상훈 교수) 인터뷰



기업명 : (주)에이프릴바이오

대표자 : 의생명융합학부 차상훈 교수

설립일 : 2013. 2. 12.

사업영역 : 항체 기반 원천기술 보유 바이오베터 및 바이오신약 개발

주요연혁

2019~2021

- NH투자증권 IPO 대표주관사 계약체결
- 시리즈B 투자유치(180억원)
- SI 브리지 투자유치(유한양행_130억원)

2017~2018

- Pre시리즈A 4개 투자기관 투자유치(30억원)
- 시리즈A 7개 투자기관 투자유치(75억원)
- 안국약품 기술이전 지속형 Hgh 호주 IND 승인

2015~2016

- 지속형 Hgh, G-CSF, 안국약품 기술이전
- SAFA technology 국제특허 등록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2013~2014

- (주)에이프릴바이오 설립
- (주)에이프릴바이오 벤처기업 인증

주요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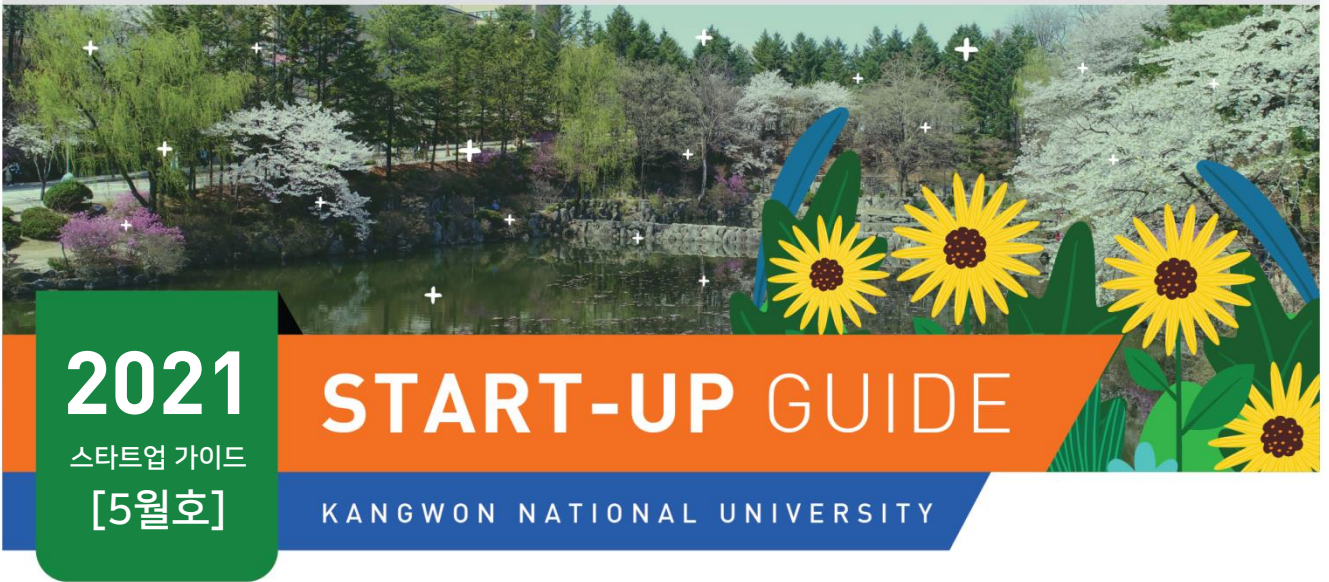
에이프릴, 알부민 결합 'SAFA 플랫폼' 올 임상 진입(2021. 4. 15. 바이오스펙테이터)

- 올해 리드 파이프라인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APB-A1'의 미국 임상 1상 돌입 예정
- 올해 기술성특례 상장을 통한 코스닥 상장 추진 예정
- 출처: www.biospectator.com

유한·안국 날개 단 에이프릴바이오, 코스닥 상장 '청신호'(2021. 3. 25. 이데일리 뉴스)

- 유한양행 지난해 30억원에 이어 올해 100억원 투자(2대주주)로 관심 고조
- 안국약품 지난 2015년 SAFA 플랫폼 기술 적용 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와 성장호르몬 결핍 치료제를 도입해 개발 진행 중
- 출처: www.edaily.co.kr





2021

스타트업 가이드
[5월호]

START-UP GUI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Q

(주)에이프릴바이오의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주)에이프릴바이오는 현재 자체 항체 라이브러리와 장기지속형 의약품 개발 플랫폼인 SAFA 기술로 기존 약물보다 긴 반감기를 가진 지속형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SAFA 기술을 적용한 약물의 경우 체내 20~25일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2~4주 한번 투여하는 장기지속형 약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엠스엠시노기술투자자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은 후 2017년, 2018년 각각 Pre시리즈A, 시리즈A 투자를 받았고 지난해 유한양행이 시리즈B 투자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는 유한양행이 3차 배정 유상증자(100억원)를 통해 2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리드 파이프라인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APB-A1'의 미국 임상 1상에 돌입할 예정이고, 기술성특례 상장을 통한 코스닥 상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국립암센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여러 기관과 공동연구 및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주)에이프릴바이오만의 투자유치 노하우가 있을까요?

A

사실 기업 운영 초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초기 시드 펀딩을 받기 전에 제약사로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여러 제약사와 업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회사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기로에 놓였을 때 좋은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노하우라면 조금 민망하구요. 제가 투자 유치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유치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투자를 먼저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기술력만 검증 되어도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 더 그렇죠.

저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자금 투입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기업을 신뢰하고 기술에 대한 확신이 들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의 경우에는 기업 운영 초기에 1~2년 정도 외부 투자 없이 기업을 끌고 가 보았는데 그 경험이 투자유치 시점에서 도움이 되었어요.

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시드 단계부터 상장 단계까지 로드맵을 그려보시길 추천 드려요. 자신의 분야에서 오랜 세월 연구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니 이 점이 당연히 막막하실 거예요.

투자 전문가나 경영 전문가로부터 적극적으로 컨설팅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상장이 EXIT 모델이라 가정했을 때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도 컨설팅을 통해 충분히 산출 가능합니다.

물론 추가로 법, 회계, 경영 등 공부를 병행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또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무작정 투자금액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건 피하셔야 해요. 대부분 투자 금액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금액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 바로 계획을 세우시는 경향이 있어요. 당장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멀리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주주로 구성되어 Scale Up까지 오랜 기간 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2021

스타트업 가이드
[5월호]

START-UP GUI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Q

창업기업 대표로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A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순간이 너무 많아서 여러 순간이 떠오르는데요(웃음).

최근 시리즈B 투자유치를 받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PRE시리즈A, 시리즈A 투자는 기술이 좋다고 평가되고 신용도가 높으면 어느 정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 동향이에요.

하지만 시리즈B 투자는 시장에서 봤을 때 상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단계입니다. 약 100~300억원으로 금액도 크다 보니 투자자들도 웬만한 확신 없이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투자를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술력 뿐 아니라 기업이 걸어온 모든 과정과 세세한 사항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니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네요.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속 투자 기회는 더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Q

교수님만의 경영 철학이 있으신가요?

A

경영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어요.

회사를 끌고 나가는 모습, 즉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면에서 본다면 '멈추면 도태된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개인이든 회사든 계속 확장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태됩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특히 회사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인력 고용에 돈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이고 우수한 인력과 함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성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회사가 성장을 해야 직원에게 다시 배풀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Q

창업을 준비할 때 예비 창업교원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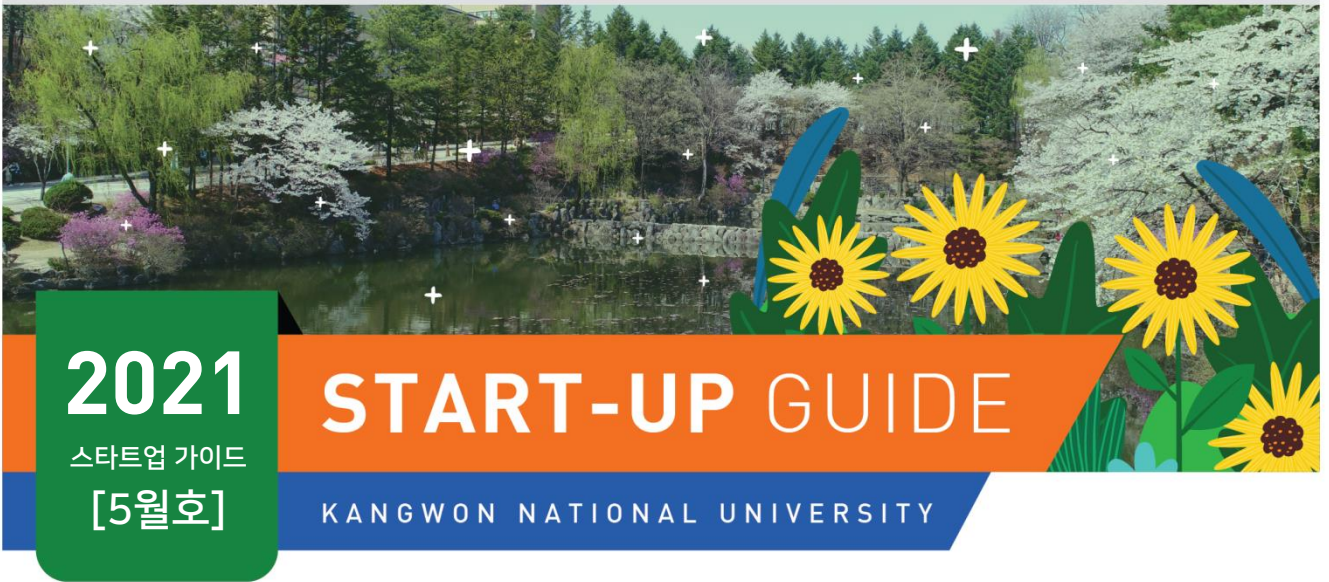
조언이라니 조금 부담스러운데요?(웃음)

앞선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지만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줄 수 있는 좋은 컨설팅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을 받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해요. 대학에서 전문성 있는 컨설턴트를 연결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도 창업을 하실 때 단기간의 매출이나 성장만 보시는 것보다 중기, 장기 계획과 목표를 철저히 세우고 신중하게 고민하신 후 시작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학에서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는 건 매우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교수님들께 창업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꼭 인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

스타트업 가이드
[5월호]

START-UP GUI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이달의 창업 이슈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강원대학교 선정)

■ 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10개 신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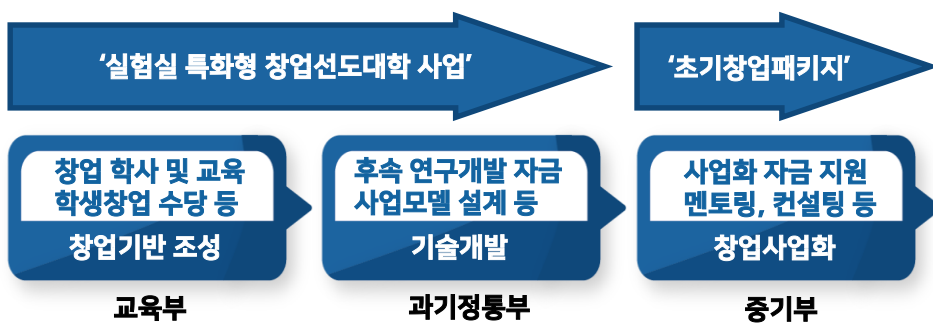
- ▶▶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 발표
- ▶▶ 올해 사업에는 총 19개 대학이 신청해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

수도권 건국대, 연세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한양대 에리카

비수도권 **강원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 한남대

- ▶▶ 선정된 10개 대학에는 앞으로 2년간(2021~2022년) 교당 연 9억원 내외로 지원되며 선정 대학은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과 우수기술 기반의 창업 등 실험실 창업 선도 예정

■ 부처간 협업 '대학원 실험실 창업 지원' 체계



- ▶▶ 교육부 :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지원
 - 실험실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 학생창업 수당 등
- ▶▶ 과기부 :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
 - 후속 R&D 자금, 유망기술 발굴, 사업화 모델 개발, 법인설립 준비, 펀딩유치 등
- ▶▶ 중기부 : 실험실 창업 이후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초기판로 구축, 멘토링(투자유치, 판로개척, 기술보호) 등

2021

스타트업 가이드
[5월호]

START-UP GUI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중소기업 경제 동향

Ⅰ 중소기업 경기와 경제 동향(2021.4)

출처: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실물경기 | 중소기업 생산은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세 유지

- ▶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2.9%에서 -5.9%로 감소세 전환
- ▶ (수출) 전년동월대비 +4.1%에서 +17.1%로 증가폭 확대

체감경기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적(체감)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 ▶ (중소기업) 실적지수는 전월대비 9.3p 상승, 전망지수는 전월대비 4.3p 상승
- ▶ (소상공인) 체감지수는 전월대비 15.4p 상승, 전망지수는 전월대비 2.5p 상승

소매판매 | 소매업 판매는 상승폭이 확대되고, 온라인 거래는 증가세 지속

- ▶ (소매업 판매) 38조 52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
- ▶ (온라인 거래) 13조 7,62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2% 증가

고용시장 |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증가세로 전환하고,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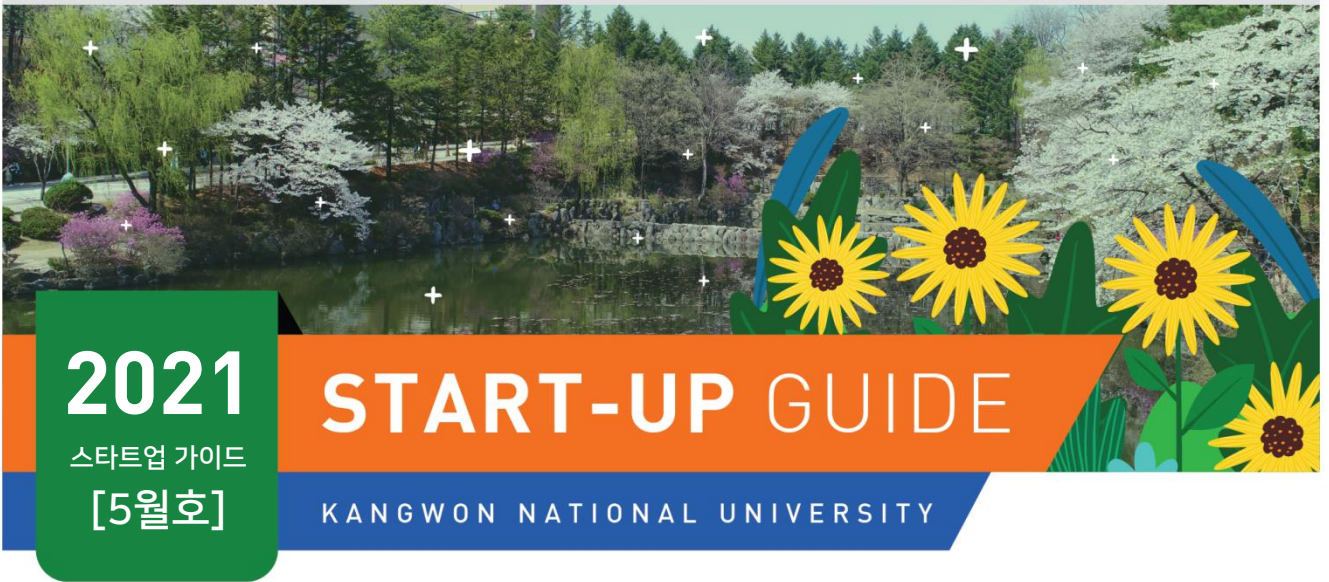
- ▶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2,413.1만명)는 전년동월대비 0.6%(13.4만명) 증가
- ▶ (연령별)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은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폭 둔화

창업·파산 | 창업기업 수는 감소하고, 파산은 개인의 증가세 지속

- ▶ (창업) 창업기업 수(109,662개)는 전년동월대비 16%(20,844개) 감소
 - 업종별: 서비스업(-16.9%), 제조업(-15.6%), 건설업(-0.1%)
 - 연령별: 29세이하(+10.3%), 30대(-6.4%), 40대(-17.3%), 50대(-22.2%), 60세이상(-29.6%)
- ▶ (파산) 1~3월 개인파산(12,055건)은 전년동기간 대비 7.2%(813건) 증가하였으며
법인파산(204건)은 전년동기간 대비 19.0%(48건) 감소

자금대출 | 대출잔액은 증가하고, 연체율은 상승세 지속

- ▶ (대출잔액) 중소기업 대출잔액(826.9조원)은 전월대비 0.9%(7.3조원) 증가
- ▶ (연체율)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44%)은 전월대비 0.04% 상승



2021

스타트업 가이드
[5월호]

START-UP GUI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tart-UP Project (지원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공고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ICT일반분야, ICT비대면분야 및 특화분야 창의·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기술기반 스타트업 성장 촉진 및 창업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ICT 기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및 업력 3년 이내 스타트업(2018년 1월 1일 이후 설립한 개인, 법인사업자)
- 모집기간

> 2021. 4. 27.(화) ~ 5. 27.(목) 15:00 까지
- 지원분야

> ICT 기술기반의 신규 웹·앱 서비스, 제품, SW 등 사업화 아이디어

지원 내용

-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멘토링) 창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
 (기술세미나) 국내·외 기술 전문가 초청, 분야별 세미나로 선진기술 벤치마킹
 (사무공간) 사무공간 희망 시 총 8팀 공간 지원(경기도 성남시 판교부근)
 (우수 스타트업 선정) 피칭역량 강화교육 및 최종 피칭을 통해 상금 수여

Ⅰ (추진일정)



Ⅱ (신청방법)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 문의처 :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사무국 (02-6248-3502~3)



2021

스타트업 가이드
[5월호]

START-UP GUI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nowledge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 직원 채용 시 주의사항

출처: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에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을 명시, 서면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조건)

▶▶ 퇴직금 월별 지급 여부

> 스타트업 경영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길수록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가 커지므로, 부담감을 느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 후 월급에 퇴직금 일정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퇴직금분할약정이라고 하는데,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채권으로, 이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조치

> 스타트업의 경우 반짝이는 소수의 아이디어로 창업한 후 이를 활용하여 회사가 운영되므로 영업비밀을 잘 관리하여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1. 직원 입사 시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고 정기적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회사 내에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거나 관리책임자를 두고, 영업비밀 관리대장 등 관리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3. 직원 퇴사 시 퇴사 후 준수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고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모두 반환 받은 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021

스타트업 가이드
[5월호]

START-UP GUI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nowledge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 직원 채용 시 주의사항

▶▶ 경업금지약정의 필요성

> 영업비밀준수약정의 일부인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스스로 경쟁 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퇴직 후 전업금지는 근로자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1~2년의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IT분야 근로자들의 이직이 급증하면서 영업비밀 유출방지 필요에서 기업들은 소속 인력들의 퇴직 이후 경쟁사로 전직 또는 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해 오고 있다.

법원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 스타트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별도의 인사파일 등을 통해 보관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영업비밀유출 등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 외에 나머지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즉시 폐기하여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정보 보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당 직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직원 해고 시 유의점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말한다.(질병, 경력사칭, 무단결근)

모든 해고에 있어서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